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6/29~2026/07/05]

2026.07.06

## [로봇]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로봇 산업 포함. 삼성도 구미에 대규모 로봇 투자
- 국내 스타트업 다수 투자 유치 추진. 디든로보틱스, 카본시스, 로보스 등
- 보스턴다이내믹스, 中 공세 맞설 '국가 로봇위원회' 신설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 [방산] NATO 정상회담 개최

- 이재명 대통령 7월 나토정상회담에 참석. 방산 수출 논의 기대
- 한화그룹, 우주/국방 AI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
- 스페인 자주포, 인니/필리핀 KF-21, 페루 FA-50 수주 움직임 확인

## [조선] 3대 관전 포인트 업데이트

-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HD현대중공업 이의신청 기간
- 캐나다 잠수함 수주 발표 임박. 한/독 양측 모두 수주에 대한 자신감 표출
- 삼성중공업 FDC 2028년 서비스 출시 계획. 바르질라는 DC항 엔진 추가 수주

## [항공] 유럽 반사수혜 둔화

- 중동 항공사 운항 편수 완만한 회복세, 아시아 항공사 유럽 노선 반사이익 감소
- 대한항공, 프레이토스와 손잡고 항공화물 예약 디지털 전환 가속
- 국제유가가 하락에 화물 유통할증료 kg당 430~470원 내린다

## [해운] 컨테이너 강세 지속

- SCFI 10주 연속 상승, 미주 운임 급등에 3,300선 회복. HMM 실적 기대감
- 팬오션 VLCC 2척 추가 발주, '26년 VLCC 투자 15억달러 돌파
- 이란, 호르무즈 수수료 고수. 중국 등 우호국 특별대우 고려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 로봇도 하나의 축으로 포함. 정부 주도 산업 육성 계획 긍정적이나, 주가 반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투자 규모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2)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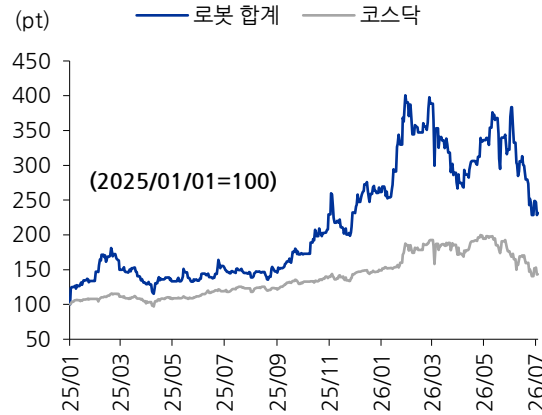
- 정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 이 중 피지컬 AI, 즉 로봇이 핵심 축으로 포함.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휴머노이드 M/S를 향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로봇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시기를 격차를 줄일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발표 내용 중 ① 신속한 양산 체계 구축, ②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개발 목표가 특히 인상적.
- 양산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즉 로봇 파운드리 및 부품 클러스터 구축과 대경권 자동차가전 부품사의 로봇 사업 전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증설 자금 지원 등을 기반으로 추진될 계획.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AI 구축에 핵심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힘. '팀 코리아'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로 판단.
- 향후 투자 로드맵, 시기, 투자 규모, 수혜 기업 등이 구체화될수록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Key Chart: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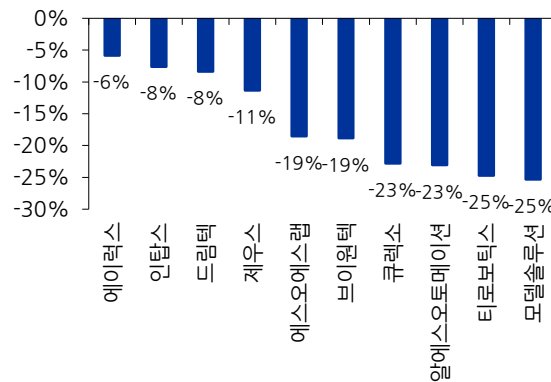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6/29~07/05)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HD현대로보, 하이브리드 협동로봇 3종 출시

[휴머노이드]

- 삼성,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 건설 추진
- 김경관 장관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20% 목표"
- 삼성 노태문 "영남 60조 투자해 AX-로봇 거점으로"

[부품/SW/기타]

- 부품 1만개 필요한 아틀라스, 韓 공급망 생태계 구축
- 로봇랜드 전문기업 '테슬로', IPO 시동
- LG전자, CEO 직속 로봇 전담 조직 신설
-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 시대' 개막. 준공식 개최
- 빅웨이브로보틱스, 공모가 낮춰 IPO 재추진

[글로벌]

- 보스턴다이내믹스, 美 '국가 로봇 전략' 촉구
- Figure.AI, BMW 공장에 휴머노이드 물류 작업 투입
-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 생산 라인 현장 방문
- 애프로닉 美 AI 훈련 시설 '로봇 파크' 개소
- 유니트리, 상하이 상장 승인. 7월 말 IPO 추진
- 中 애지봇, 휴머노이드 누적 생산 1만 5,000대 돌파
- 애지봇 6일간 작업 생중계 "성공률 99.99%"
- 中 '엑스스퀘어로봇', 기업가치 28억달러 돌파
- 가와사키중공업, 해외 증자·CB 발행으로 1,937억 엔 조달
- 일본, 2040년까지 'AI로봇 1천만 대' 배치
- 야스카와, 슬로베니아 50억엔 투자해 로봇 생산 강화
- 日 경제산업성, 혼다 로봇랜드 개발에 100억엔 지원



Weekly Keyword

**NATO 정상회담 개최**

이번 주 7~8일 NATO 정상회담 개최. NATO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도출 기대.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석. 유럽 방산 공급망 편입 관련 성과 확인 주목.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80)

**[NATO 정상회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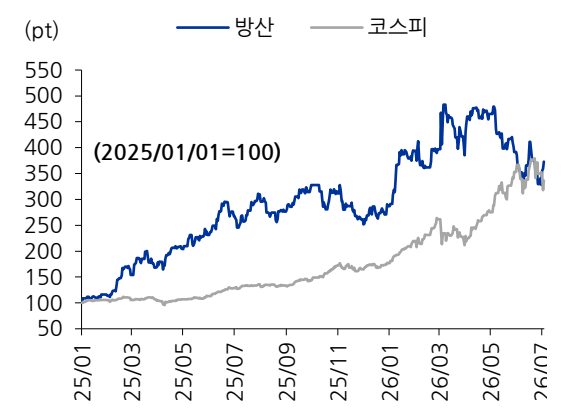
- 7월 7일~8일에 걸쳐 튀르키예에서 연례 NATO 정상회담이 개최. 이미 외신에서는 공동 선언문 초안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NATO Article 5 집단방위 원칙을 재확인하고, 러시아를 장기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2026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700억유로 및 2027년 동등 수준 이상의 지원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짐. 작년 정상회담에서는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NATO 탈퇴 가능성, 미국의 군사 지원 축소, 동맹국 부담 확대 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나, 예상 보다는 침착한 톤의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함(작년에는 초청에도 불출석). 7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방산 포럼 참석, 8일에는 참여국과 양자 회담을 통한 방산 협력 논의가 예정되어있음. 늘어나는 유럽의 방산 수요에서 한국이 공급망에 얼마나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 협력 등 구체적인 성과 확보 기대.

**Key Chart: 하지만 여전히 압박 중인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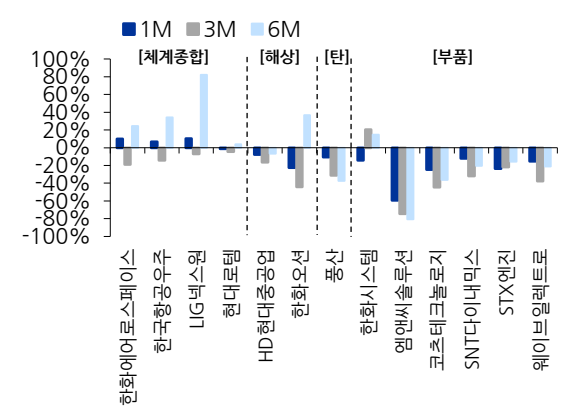


자료: 트루스소셜,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6/29~07/05)

**[수주/계약]**

- 스페인 자주포 소송전 봉합 조짐. K-9 수주 기대
- KF-21 인니 이어 필리핀도 최대 20대 도입 추진
- 페루, 한국과 FA-50 부품 현지생산 양해각서 체결

**[기업별 이슈]**

- 한화, KAI 지분 1.06% 추가 매수해 '11.21%'
- 폴란드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공장 착공
- 한화 김동관 "우주항공·AI에 55조원 투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EC2 첫 출하 개시
- 현대로템, 조직 개편 "방산, 항공디펜스로봇수소로 이원화"

**[기타]**

- 방산외교 나선 李.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 나토 총장 "한국 사랑해" 재무장에 한국산 무기 구입 의사
- 캐나다, '국제 방위은행' 창립 추진. "韓 참여 검토"
- KADEX with DX 통합 방산전시회 12월로 연기 가닥

**[글로벌]**

- 영국, 26~29년 국방예산 2,980억 파운드 지출
- GCAP 개발에 캐나다가 옹저버로 참여 검토
- 독일, 토마호크와 PAC-3 라이선스 생산 요청
- 독-불 전차제조 KNDS, 기업공개 연기 "시장여건 불리"
- KNDS, 철도 공장 부지에서 장갑차 부품 생산을 시작
- 이스라엘, 루마니아에 스파이더 방공 23억 달러 판매
- 세르비아, 中 HQ-9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
- 록히드마틴, 미 육군 30억 달러 GMLRS 수주
- 쿠웨이트, NASAMS 방공 시스템 도입



Weekly Keyword

3대 관전 포인트 업데이트

최근 조선 업종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관전 포인트는 (1) 데이터센터 항 엔진 공급 (2) 플로팅 데이터센터 (3) 캐나다 잠수함 사업일 것. 머지않아 수주, 로드맵, 증설 등 결과로서 확인이 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0)

[3대 관전 포인트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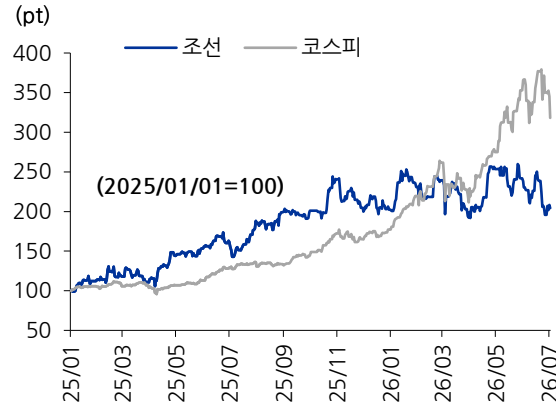
- 조선 업종의 핵심 3대 관전 포인트의 최근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
- (1) 데이터센터항 엔진: HD현대중공업의 미국 텍사스 DC 항 684MW 엔진 수주 이후 추가 수주 소식은 없으나, 경쟁사 바르질라가 지난 주 2.9억유로 규모의 추가 수주를 확보. 선박용 중속엔진이 데이터센터용 온사이트 발전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재확인. HD현대중공업도 2Q 실적 발표에서 추가 업데이트를 기대.
- (2) 플로팅 데이터 센터: 당사의 삼성중공업 야드 투어 후기에서도 언급했듯, 첫 사업을 확인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 트레이드윈즈에서는 2028년 상업 출시 가능성을 언급.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하이퍼스케일러와의 대규모 FDC 발주 가능성을 주목.
- (3) 캐나다 잠수함: 외신 보도에 따르면 NATO 정상회담 전인 7월 6일 발표 가능성. 최근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자국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혼전. 한국 수주시, 선진국 잠수함 수출 레퍼런스 기반 추가 수출 시장 확대의 길이 열릴 것. 최근 영국의 한국 수주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참석도 한국 측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Key Chart: 삼성중공업 FDC 2028년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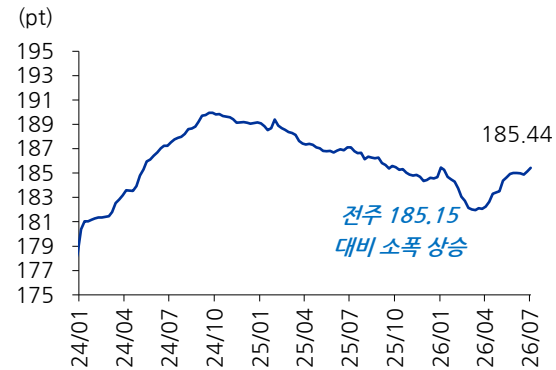


자료: 트레이드윈즈,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6/29~07/05)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254.4m LNGC 1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319.7m FSRU 1척 수주
- 삼성중공업 \$88.3m 수에즈막스 2척 수주
- HD현대삼호 \$118.4m VLGC 2척 수주

[특수선]

- 한화오션, 韓 차기구축함 KDDX 우선협상사 선정
- 加 잠수함 사업, 한국 쪽으로 수주 두고 '막판 조율'
- 美 해군 추가 정비 요청. '체인지 오더' 증가
- 대조영함 태국 입항. '한화오션' 수주 굳히기

[기타]

- HD한국조선해양 상반기에 연간 목표 67.4% 달성
- 한화오션 하청노조, 쟁의권 확보해 파업 수순
- 삼성중공업 FDC 2028년 2분기 서비스 출시 계획
-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자사주 1만주 매입
- 삼성중공업, 싱가포르 쿠옥그룹과 전략적 협력 확대
- Karpowership이 HSG 성동에 부유식 바지선 4척 주문
-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튀르키예산 미사일 도입 부인

[글로벌]

- 獨 TKMS 자회사 '아틀라스' 해킹 피습
- 독일 재무장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 수주 낙관
- 美, 선박법 예산 대폭 축소. K-조선 낙수효과 미미
- 바르질라, 2.9억유로 데이터센터항 엔진 공급 계약
- 모잠비크 LNG 17척 신조 발주 일정 지연
- '20년 표류' 인도 잠수함 12조 최종 승인



Weekly Keyword

유럽 반사수혜 둔화

중동 항공사 RPK 감소폭이 5월 -28%yoy로 축소되며, 아시아 항공사들의 유럽 노선 반사수혜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다만 전쟁 기간 누적된 예약은 2분기 실적에 온기 반영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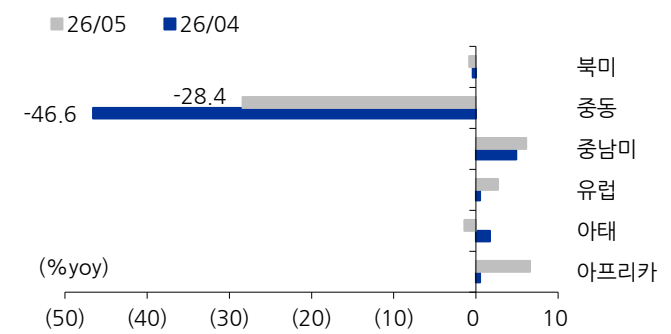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0)

[유럽 반사수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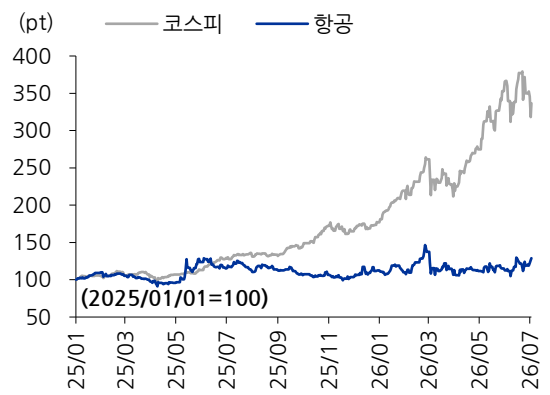
- IATA에 따르면 중동 항공사 RPK 감소폭이 4월 -46.6%yoy에서 5월 -28.4%yoy로 축소. 휴전으로 운항 제한이 완화되며 중동 지역 항공사들의 운항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이에 따라 전쟁 초기 중동 항공사 운항 차질로 반사수혜를 누렸던 아시아 항공사들의 유럽 노선 여객 수요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국내 항공업계의 2분기 실적에는 반사수혜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판단. 장거리 노선 예약은 통상 6개월 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예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 5월 인천공항 환승 수요(+35%yoy)는 견조했으며, 구주 노선 여객 또한 48만명(+13%yoy)을 기록했음. 중동 항공사들의 운항 정상화로 하반기 yield 개선 폭은 제한될 수 있으나, 2분기 대한항공 실적에는 환승 수요 증가와 유럽 노선 공급 제약에 따른 yield 개선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

Key Chart: 항공 지역별 RPK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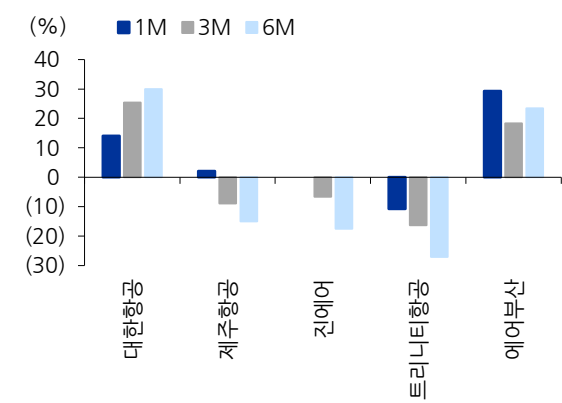


자료: IATA,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6/29~07/05)

[여객/화물]

- 중동 안정화에 아시아 항공사 유럽 노선 반사이익 감소
- 중국 노선 활기에 LCC, 증편·부정기편 확대 경쟁
- 고유가 직격탄 항공사, AI 데이터센터뿔 화물로 웃는다
- 국제유가 하락에, 화물 유류할증료 430~470원/kg 내린다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통합 앞두고 보안 기준 맞춘다
- 대한항공, 프레이토스와 항공화물 예약 디지털 전환 가속
- 제주항공, 인천~제주 노선 10월까지 주 2회 운항 연장
- 티웨이항공, 인천~칭다오 등 중국 노선 하계 정기편 확대
- 에어부산, 고효율 항공기 투입으로 2분기 14억원 비용 절감

[기타]

- 인천공항공사, 브뤼셀공항과 콜드체인 물류협력 MOU 체결
- 항공·해운 탈탄소 시대, 에탄올 활용 SAF 시장 열린다
- 탄소 할증료 시대 온다, 글로벌 항공사 170조 탄소세 직면
- EU 출입국시스템(ESS) 대환란, 항공업계 '성수기 유예' 요청

[글로벌]

- 에어벨기에, 8월부터 튀르키예 공항 통해 화물 운송 개시
- 루프트한자, ITA 등 유럽 항공사 4개월만에 이스라엘 재취항
- 베트남항공, IATA와 항공 화물 운송 디지털화 워크숍 개최
- 美 항공 시장의 역설, 국제선 뺏치는 국내선 요금



Weekly Keyword

컨테이너 강세 지속

조기 성수기 물동량, GRI, 선복관리로 SCFI는 10주 연속 상승을 기록. 미주, 유럽 항로 모두 실질 선복은 타이트한 상황. 성수기 구간 높은 컨테이너 운임 레벨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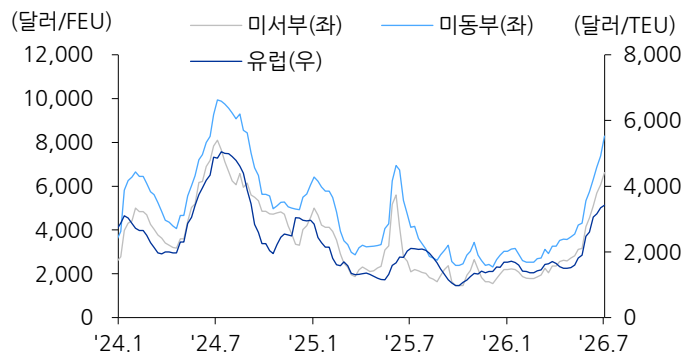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3)

[컨테이너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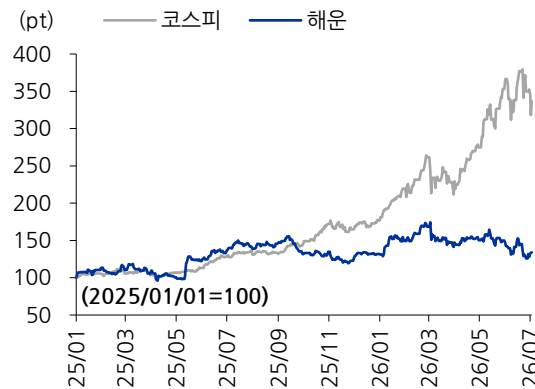
- 7/3 주간 기준 SCFI는 3,327pt(+2.7%wow)를 기록하며 10주 연속 상승. 이는 '24년 7월 홍해 사태 정점인 3,734pt 대비 불과 12% 낮은 수준. 주요 항로별 운임은 미서부 6,630달러/FEU(+9%wow), 미동부 8,296달러/FEU(+12%wow), 유럽 3,418달러/TEU(+2%wow)를 기록. 이는 조기 성수기 물동량, GRI(일반 운임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항로별로는 1) 미주 항로: 동남아발 수출 증가와 관세 회피성 조기 선적 2) 유럽 항로: 홍해 우회 지속에 따른 실질 선복 제한 효과로 운임 상승. 5월 평균 용선 계약 기간은 약 19개월로 '23년 평균 9개월을 크게 상회하며 강한 선주 협상력까지 확인되는 상황. 연말로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성수기 구간 높은 운임 레벨은 유지될 전망.

Key Chart: SCFI 컨테이너 주요 항로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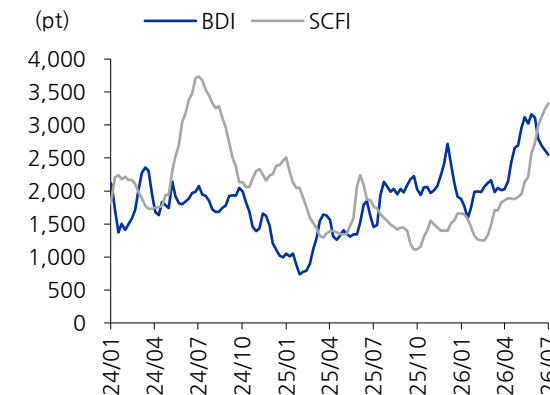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6/29~07/05)

[벌크선]

- COSCO 벌크선 24척 신조 발주, 2029~2030년 인도 예정

[탱커/가스선]

- Drewry, 2028년부터 원유 탱커 해체 활동 급증 예상
- HMM, Mercuria와 2억달러 규모 VLGC 2척 장기 계약 체결
- 팬오션 VLCC 2척 신규 건조에 3,776억원 투자, 30년 예정
- SK해운, 가스운반선 중심 선대 재편으로 이익창출력 강화
-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대주주, 임직원 경영 강화

[컨테이너선]

- '25년 7월 이후 소형 및 중형 컨테이너선 발주 선호도 급증
- 컨테이너 운항 스케줄 안정화, 향후 5주간 97% 정상 운항
- 중동 분쟁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인트라아시아 운임 하락
- MSC 초대형 컨선 20척 신조 발주, 1H29 순차 인도 예정
- HMM '36년까지 2척 장기 대선 계약 체결, 3,118억원 규모

[기타]

- 美 공화당, 트럼프에 '존스법 유예' 8월 중 종료 압박
- 오만 호르무즈 통항로 반대 입장 재확인, 이란 입지 약화
-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 일평균 약 40척으로 크게 증가
- 이란 중앙사령부, 미허가 통항 시도 선박에 무력대응 예고
- 호르무즈 해협 내 남은 국적선 2척, 나무호 7월 중 수리 완
- HMM 부산 서면에 임시 사옥, 본사 이전 작업 본격화 예정
- 베네수엘라 라과이라항 지진피해로 항만 운영 중단